Macro

성장을 받쳐주던 미 설비투자 둔화 예상

Economist 이하연
hayeon.lee@daishin.com

- 고금리 기간에도 미 설비투자는 제조업 리쇼어링, AI 관련 투자수요에 견조
- 하지만 경기 둔화, 정책 불확실성에 투자 선행지표 둔화
- 대선 이후 금리인하와 맞물려 설비투자 다시 재개, 성장 동력 역할 기대

고금리 기간에도 양호했던 미 설비투자

최근 미국 설비투자 선행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며 하반기 미 경제 성장에 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 투자 부진은 시차를 두고 생산 및 고용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

한동안 설비투자는 견조한 증가 흐름을 나타내며 미국 성장 차별화에 기여해왔다. 고금리 기간에도 IRA 등 정부의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과 AI 관련 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 수요가 설비투자 증가를 견인해왔다. 덕분에 미국 경제는 여타 국가 대비 높은 금리 수준에도 차별적인 성장세 유지가 가능했다.

정치 불확실성, 경기 둔화 등이 하반기 기업 자본 지출 둔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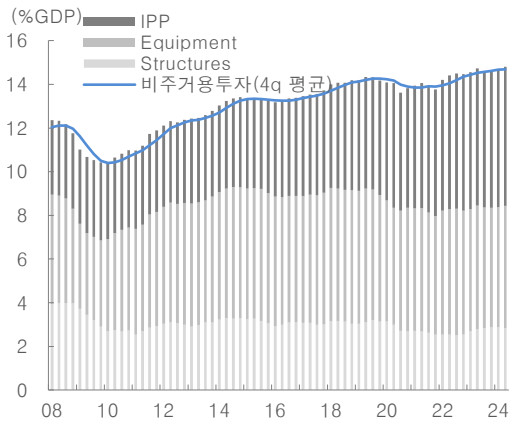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면서 설비투자 증가세는 당분간 제한될 전망이다. 제조업 리쇼어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감안할 때 트럼프나 해리스 모두 미국 내 제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트럼프의 경우, IRA법안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 대선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그동안 시장이 배제해왔던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점 또한 설비투자 둔화 요인이다. 물론 미국 경제가 단기간 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초과 저축 소진, 고금리 부담, 노동 수요 둔화 등에 소비 여력은 약화되고 있다. 섣부른 투자가 과잉 생산, 재고 부담 확대 등을 초래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은 자본지출에 신중한 모습이다. 최근 서베이 자료를 보면 투자자 역시 기업에 자본지출 증대보다 현금화(배당, 자사주매입 등을 통한)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I 인프라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기업 실적 발표에서도 자본지출 확대를 주도했던 클라우드 기업 중심으로 투하 자본 대비 낮은 수익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설비투자, 대선 이후 금리인하와 맞물려 다시 성장 동력 역할 기대

미 대선까지는 설비투자 지연이 불가피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투자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새로운 정부가 경기 부양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 보다 연준의 금리인하가 금융기관 대출태도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미국내 제조업 리쇼어링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투자 지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숙련 노동자 및 인프라 부족에 생산성 향상 위해 정부 차원에서 AI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다시 설비투자의 성장 동력 역할이 기대된다.

그림 1. 미국 비주거용투자 비중 꾸준히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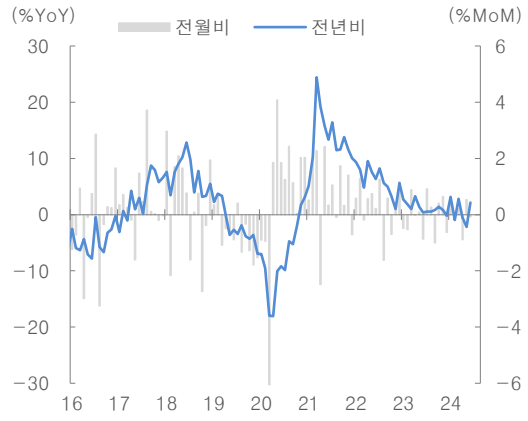


자료: BE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미국 제조업 인프라 투자, 건설지출 확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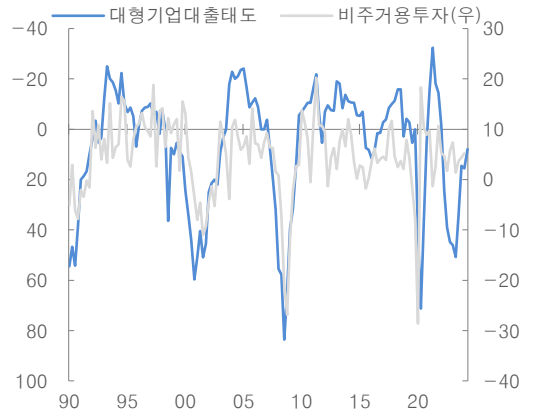
자료: Censu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설비투자 선행지표, 핵심자본재수주 둔화 흐름



자료: Censu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대출태도 완화, 내년 설비투자 회복 요인



자료: FRB,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하연)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